

##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

###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토론문

강 원 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오랜 시간동안 한국정치사 연구에 천착해 오신 박명림 교수의 고하에 관한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박 교수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기 때문에 질문이나 이견을 제기하기보다는 발표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명림 교수가 잘 제시한 고하의 ‘자유, 통합, 민주, 공화’의 사상,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이 오늘날 한국 정치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1. 고하가 살던 시대는 시대적 전환기였다. 조선은 식민지였지만 국제정세로 보면 머지않아

일본의 몰락과 강대국 미국의 부상, 그리고 소련, 즉 적러와의 대립으로 인한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시대적 전환의 직전이었다. 그러나 해뜨기 직전의 칙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기도 해서 그러한 변화를 읽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고하는 박 교수의 인용문처럼 “세계 대세의 조류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 방면으로 이동하여” 오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격인 적로(赤露)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양자가 상대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불원한 장래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협조할까, 충돌할까. ....세계 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인류의 문화상 총결산이 이에서 감정(勘定)될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아오면 미·러 충돌이 도정에 있어서 일·미 충돌이 전제가 될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고 정확하게 예견했다.

오늘날 역시 시대적 전환기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패권이 도전 받는 이른바 G2의 체제로 변모해 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AI, 로봇, 블록체인 등 산업 생태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대적 변화의 폭이 클수록 그만큼 더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한국이 해방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은 고하와 같은 매우 탁월한 시대적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너무 쉽게 빠른 시기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파가 반탁, 좌파가 찬탁을 했기 때문에, 반탁이 아닌 주장은 좌파에 동조

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기존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분단을 피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탁치 논쟁 때까지였다고 생각한다. 모스크바 3상회담 안에는 코리아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면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정치가 진행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분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탁치안에 대한 결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감정적 열정에 빠져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이야 감정적 대응을 표출할 수 있다고 해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면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했다. 당장의 반대보다 그 결정의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결정의 저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신중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고하와 소수의 인사를 제외하면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는 맹목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감정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분열되었지만, 정치 지도자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국민을 차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그리운 세상이다. 고하의 리더십이 그리운 이유이다.

3. 위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이념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명림 교수는 고하가 비록 독립한 국가가 되었더라도 그 권력이 일인의 전단한 바 되고, “일계급의 독재한 바 된다면 무엇으로서 우리의 생명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광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잃었던 것”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는데 있는 것” 이라고 인용하며 고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고하는 극단적 입장이지 않다면, 좌파와도 대화하고 통합도 추구했다. 또한 박 교수의 지적처럼, 창당 당시의 한민당은 우파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나 중도우파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졌다. 고하의 지도자로서의 포용력과 통합의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다.

오늘날 정치에서도 이념적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념이라는 굴레의 속을 들여다보면 별다른 심각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념은 사회적 가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포용의 리더십이 부족한 탓이다. 보다 큰 틀 속에 서로 다름을 녹여 낼 수 있는, 이념적으로 더더욱 어려웠던 시대에 고하가 보여주었던, 통합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